

여권의 일방적 우세 속, 야권 인물찾기 '부심'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추동력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가 여당 승리로 끝나면 정국 주도권은 대통령 쪽으로 쏠리면서 각종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의미있는 성과를 낸다면 적폐청산 작업과 국정운영 전반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본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뛰고 있는 인사들을 살펴보고, 선거결과를 예측해보는 순서를 마련한다.

6·13 지방선거, 누가 뛰나

① 서울시장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9곳을, 여권인 새누리당은 8곳을 각각 차지했다. 박빙의 결과였지만 승부는 야권의 승리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였다.

이 같은 판단을 가능케 한 결정적 지역이 바로 서울시다.

당시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이때의 승리는 대통령 탄핵과 촛불정국이라는 큰 정치적 이슈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됐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3대 요소, 즉 지지율, 구도, 후보군 측면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3선 도전은 여권 내에서 누가 지지할 것이냐의 구도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박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거나 고향 경남에서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박 시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후보들 간 내부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 누가돼도 당선가능성= 박원순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여성 후보들이 잇달아 출마표를 내면서 첫 '여성시장'을 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구로로 4선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지난 6년 간 시정을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서울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과 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야권 통합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사이다.

박 전 대표는 "박영선, 서울을 갈다"라는 행사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내 고궁과 대학을 찾아가 시장 후보로서 자신을 홍보하고 미래구상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전문 주류가 '비문' 진영 대표 격인 박 의원에게 표를 줄지가 관건이다.

또 여성 의원으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름도 거론된다. 추 대표는 서울 광진구에서 당선되면서 여성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지역구 5선 의원'이란 대기록을 세웠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서울시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전현희(재선, 서울 강남)의 의원도 당세가 약한 강남 지역에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후보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서대문갑에서 3선을 한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이다.

우 전 대표는 서울시장직에 관심을 가졌던 이인영 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당내 386그룹 단일후보격으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을 3선 출신의 민병두 의원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봉주, 정청래 전 의원 등

원의 인사들의 도전도 예상된다.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사면복권을 기념해 열린 식사자리에 앞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신의 기치를 설명한 바 있으며, 정청래 전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민과 서울시 당원이 원한다면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인물난'에 허덕= 우수한 자원이 넘쳐나는 여권과 달리 야권은 선거에 나설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정욱 전 의원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홍 전 의원이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혀 대안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젊은 이미지의 김용태 의원(양천을·3선)과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경쟁해 낙선했던 나경원 의원(동작을·4선)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특히 한국당 후보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도 거론되지만 자칫 지방선거가 탄핵 이슈로 흐를 수도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후보를 낸다면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오거나 재선의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구갑)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이후 백의종군을 선언한 안 대표가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지도 이번 6·13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윤정일 기자 yunji@



국내 판매 1위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가격
인하**

2구·4구 국내 최대 판매 실적

J-200



일반형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2구, 4구 16A

₩ 13,000 2구 (VAT. 별도)
₩ 15,000 4구 (VAT. 별도)

J-200S



45도형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2구, 4구 16A

₩ 15,000 2구 (VAT. 별도)
₩ 17,000 4구 (VAT. 별도)

기존 : 3.3 x 7.0 Cm²

현재 : 3.3 x 6.1 Cm²

더욱 좁아져서 벽진 몸체 사이즈로
최대한 구조적 강도를 적용 가능합니다.

• 2년 AS보장 • 직접 제조부터 판매까지 한번에



본사·공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니지로 418번길 14-3(작전동)
세일빌딩 본관동 T : 032-554-0922 F : 032-554-092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 국민도 기업인 존경해야”

인특보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란 게 언뜻 보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기업운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0년 사회적 책임이 국제표준(ISO 26000)으로 제정됐고, 선진국에서는 이윤창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기업운영의 중요한 요소여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란 이슈가 아직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업과 국민들 모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사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는 국제기구에서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OECD에서는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WBCSD(지속가능발전세계기업협의회)에서는 직원·가족·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국가 경쟁력은 25~30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가치 면에서는 30위 밖이죠.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나 인구구조가 나날이 변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면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 회장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SR)과 관련한 국제표준(ISO 26000)이 2010년 제정됐다.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다.

“우리 국민들도 기업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기업들이 이윤창출에만 매몰돼 노동을 착취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기도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거든요. 이런 순기능을 인정해 주고 기업인을 존경해줘야만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설 겁니다.”

백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KSA행복나눔회를 만든 것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KSA행복나눔회는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한 나눔 실현’을 비전으로 2016년 처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이미 제정 노동·환경·소비자 이슈 등 포함

금단체로 지정됐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과 교육 지원하고, 다문화 유관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금천, 구로, 영등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지원과 지구촌 나눔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표준협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사람다운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이를 표준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국대 석좌교수이기도 한 백 회장은 마지막으로 “융합표준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국대에 융합표준전공 과정을 개설했다”며 “경영학에 노동과 사회책임, 사회안전망, 심리학 등을 융합해 이를 경영의 표준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결국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질적 가치보다는 사람다운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형석 기자 azar76@



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